

'4년 연속 투·타 연봉킹' 이대호·양현종·운명의 2020년

각각 4년전 이대호 25억·양현종 23억 계약
시즌 뒤 나란히 다시 FA... 해외 진출 등 변수

2020년 프로야구 투·타 최고 연봉은 변함없이 이대호(38·롯데)와 양현종(32·KIA)의 몫이었다. 시즌 후 나란히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두 선수에게 새 시즌은 남다른 의미를 지닐 전망이다.

17일 한국야구위원회(KBO) 발표에 따르면 프로야구 2020년 전체 등록 선수 중 이대호가 4년 연속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일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거친 뒤 2017년부터 롯데와 4년 150억원에 계약을 맺었던 이대호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해로서 연봉만 25억원을 수령한다. 2017년 당시 이대호는 계약금 50억원, 4년간 매해 25억원씩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양의지(NC), 김현수(LG) 등 그 사이 100억원 이상 계약이 여러명 나왔으나 이대호를 능가

하는 규모는 없었다. 투수 부문만 한정하면 23억원을 받는 양현종이 최고 연봉자다. 전체 2위이자 투수 부문 4년 연속 연봉킹이다.

양현종은 2017년 당시 이대호와 마찬가지로 FA 자격을 얻었지만 다년 계약이 아닌 단년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당시 또 다른 FA 최형우, 나지완을 붙잡는데 큰 돈을 쓴 KIA가 동시에 거액을 쓰기 어려워져 선수 측이 다소 양보했다. 이에 양현종은 2017년부터 4년간 해마다 연봉계약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 액수는 다년계약 선수를 능가했다. 양현종은 2017년 첫해 계약금 7억5000만원, 연봉 15억원 등 총액 2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 23억원, 2019년 23억원을 수령했다. 올해도 똑



같은 23억원이다. 총액 91억5000만원이다.

4년째 투·타 포지션 연봉킹을 이어간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시즌을 마친다면 올해 말 또 한 번 FA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이대호는 국내에서 두 번째 FA 자격 행사며 양현종 역시 두 번째다. 양현종의 경우 지난 FA 때 단년 계약을 맺었기에 이번이 첫 다년 계약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성적 등 여러 요소가 중

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개인성적은 물론 소속팀 롯데의 최하위 추락을 경험한 이대호는 새 시즌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각오다. 적지 않은 나이를 향한 우려 속에 현역 생활 자체가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양현종의 FA도 주목받는다. 현재 KBO리그 최고의 투수로 성장한 양현종은 새 시즌에도 성적을 이어간다면 시장에서 최대어



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수는 해외 진출 여부다. 양현종은 시즌 뒤 메이저리그 혹은 일본 프로야구 진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KBO리그 최고의 투수를 향한 미국, 일본의 관심도 여전하다. 양현종은 2016년 첫 FA 당시에도 일본 프로야구 진출 가능성이 있었지만 KIA 잔류를 택했다. 다만 최근 김광현(세인트루이스)의 메이저리그 입성 등으로 KBO리그에 해외 진출 바람이 다시 부는

가운데 양현종 역시 해외무대에 대한 의지를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잔류를 택할 시 소속팀 KIA에 남은 확률이 매우 높다. KIA 프랜차이즈 스타인 양현종은 평소 KIA의 레전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현종은 2016년 첫 FA 당시에도 일본 프로야구 진출 가능성이 있었지만 KIA 잔류를 택했다. 다만 최근 김광현(세인트루이스)의 메이저리그 입성 등으로 KBO리그에 해외 진출 바람이 다시 부는 가운데 양현종 역시 해외무대에 대한 의지를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잔류를 택할 시 소속팀 KIA에 남은 확률이 매우 높다. KIA 프랜차이즈 스타인 양현종은 평소 KIA의 레전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현종은 2016년 첫 FA 당시에도 일본 프로야구 진출 가능성이 있었지만 KIA 잔류를 택했다. 다만 최근 김광현(세인트루이스)의 메이저리그 입성 등으로 KBO리그에 해외 진출 바람이 다시 부는



“코로나 아니었다면 3만명도” 빅버드에 이니에스타가 온다

수원삼성, 오늘 오후 비셀고베와 ACL 1차전

“한국 최고 골퍼는 박세리? 박인비?”

박세리(43) 박인비(32)녀. 역대 한국 최고의 골퍼 선수를 두고 미국 언론이 “둘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선수”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 ‘골프채널’은 18일(한국 시간) “한국에서 박세리와 박인비 중 누가 더 위대한 골퍼인가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한 흥미롭다”고 보도했다.

박인비가 지난 16일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을 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세리와 비교를 하게 됐다. 박인비는 박세리(통산 25승)에 이어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 고지를 밟았다.

매체는 “한국에서 박세리의 위치는 마치 성직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라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박세리가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던 1988년 US오픈 정상에 오르며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과 활기를 주었다는 희망을 선사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 샴을 하던 장면은 한 동안 국가에 나올 정도로 박세리는 큰 인기를 얻었다.

매체는 “박인비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박세리와 비교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메이저 우승 트로피보다 값진 올림픽 금메달을 통해 박인비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한국 골퍼 역사에서 이미 최고의 선수가 됐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국 골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세리와 박인비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둘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선수다. 이 건 마치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을 두고 누가 최고의 미국 대통령인가를 꼽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스페인 라리가의 빅클럽 바르셀로나에 2002년 입단, 2018년까지 무려 16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패스 마스터’라 불리던 사냐이가 있다. 출전한 경기만 440경기가 넘는다. 라리가 우승만 9회이고 코파 델레이(국왕컵) 6회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트로피 ‘빅어’도 4번이나 들어올렸다.

‘무적함대’로 통하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활약하며 131회의 A매치 출전을 기록한 전설적인 사냐이가 있다. 스페인어 유로 2008과 유로 2012를 잇따라 제패했을 때 그 중심에서 방향기를 잡고 있던 선수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 이니에스타(36).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통하는 인물이자 ‘신기’에 올라 있는 리오넬 메시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선수인 이니에스타는 여전히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무대는 달라졌다.

지난 2018년부터 일본의 J리그 비셀 고베에서 활약하면서 현역 시절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센스’는 범접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다. 그가 한국에 온다.

지난해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하는 수원이 19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조별리그 G조 1차전을 갖는다. 상대가 바로 이니에스타의 소속팀 비셀 고베다.

수원은 비셀 고베 외에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와 조호르 다를탁집(말레이시아)과 격돌하는데,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편성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광저우가 워낙 ACL에서 강하기에 16강 진출 경쟁자로 꼽히는 비셀 고베와의 홈경기는 꼭 잡아야한다. 물론 녹록지 않은 상대다.

K리그 양강으로 꼽히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도 J리그 클럽들에 혼쭐이 났다. 수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특히 이니에스타라는



‘빅네임’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이니에스타는 지난 12일 일본 고베에서 펼쳐진 조호르 다를탁집과의 1차전에 출전하며 ACL 데뷔전을 치렀는데, 시뻘대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펼치며 5-1 대승을 견인했다.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니에스타에 대한 찬사는 일본을 넘어 유럽으로 날아갔을 정도다. 그가 한국을 다시 찾는다. 이니에스타는 지난 2004년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빅버드’를 찾아 수원과 친선경기를 치른 적 있다. 16년 만의 재회다.

선수들에게는 부담이겠지만 팬들에게는 설레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벤트 매치도 아니고 정식 경기에 이니에스타급 슈퍼스타를 현장에서 보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다. 이미 반응은 뜨겁다.

수원 관계자는 18일 “이니에스타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며 “아마도 우리 팀 ACL 홈경기 사상 최대 관중이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대단한 티켓파워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뒤늦은 한파가 아니었다면, 주말에 열리는 경기였다면 3만명 이상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이니에스타 효과를 설명했다.

6.5cm, 13.6kg 컸다... ‘39살 프로야구’ 얼마나 성장했나

평균연령 1.3세 증가, 연봉은 10배 넘게 상승

위기 평가 속 관중 감소...중계권료 대박은 희망적

구분	1982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82-2020 시즌비교
총 경기수	240G	720G	720G	720G	720G	480G 증가
팀 당 경기수	80G	144G	144G	144G	144G	64G 증가
평균 연봉 (외국인/신인 제외)	1,215	13,985	15,026	15,065	14,448	1,089.1% 증가
평균 신장	176.5cm	183.0cm	182.8cm	183.0cm	183.0cm	6.5cm 증가
평균 체중	73.9kg	87.0kg	87.5kg	87.5kg	87.5kg	13.6kg 증가
평균 연령	26세	27.5세	27.5세	27.3세	27.3세	1.3세 증가

3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프로야구, 1982년 출범 당시와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7일 2020년 등록선수 명단(총 588명)과 함께 1982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야구의 규모, 선수들의 연령과 체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다.

1982년 프로야구는 6개구단 체제로 출범했다. 팀 당 80경기 씩, 총 240경기를 치렀고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215만원이었다. 평균 신장은 176.5cm, 체중은 73.9kg, 연령은 26세였다.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됐다. 경기 수는 팀 당 144경기 씩 총 720경

기로 확대됐다. 총 480경기가 늘었다. 평균연봉(외국인·신인 제외)은 1억4448만원으로 무려 1089.1% 증가했다.

선수들의 체격도 커졌다. 평균 신장은 183cm로 원년에 비해 6.5cm 증가했다. 평균 체중 역시 87.5kg으로 13.6kg 늘었다. 올 시즌 외국인 선수 30명의 평균 신장과 체중 189cm, 95.5kg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동일 포지션의 선수들을 비교할 경우 크게 뒤지지도 않는다.

2020년 최장신은 NC의 새 외국인 투수 마이크 라이트, 한화 신인 투수 신지후로 198cm, 최중량은 롯데 이대호와 두산 백민규로 130kg이다.

평균 연령도 27.3세로 원년보다 1.3세 높아졌다. 1980년대에는 30

대 초반에도 노장 대우를 받았으나 이제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30대 후반까지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올 시즌 최고령 선수는 LG 박용택이다. 박용택은 유일한 1970년대 생(1979년생)으로 1월31일 등복 기준 나이가 만 40세9개월10일이다. 자기관리의 표본으로 꼽히는 선수다.

여러모로 크게 성장한 프로야구,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 보인다. 선수들의 연봉이 대표적이다. 평균연봉 1억4448만원은 3년만에 1억5000만원대가 무너진 수치다. 최근 리그 전체에 퍼진 지출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관중 수도 줄기 시작했다. 원년의 143만8768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지난해 관중 수는 728만608명으로 4년만에 800만 달성에 실패했다. 경기력 저하, 인기 구단 KIA와 롯데의 부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한 실망감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 KBO는 최근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4년 간 총 2160억원 규모의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통산·포털 컨소시엄과 체결한 5년 총액 1100억원 계약을 더해 중계권료 3000억원 시대가 열렸다. 중계권료 개념이 없던 시절엔 원년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日 언론 “오승환, 아시아 최다 407세이브까지 8개”

일본 언론이 ‘돌아온 돌부처’ 오승환(38·삼성 라이온즈)의 세이브 기록에 주목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데일리스포츠는 18일 오승환이 아시아 기록인 통산 407세이브까지 8개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기록과 관련한 오승환의 코멘트도 담겨 있다.

오승환은 지난해 미국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방출된 후 삼성에 복귀했으나 해외 원정

도박에 따른 징계, 팔꿈치 수술로 인해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올 시즌 역시 잔여 징계를 소화해야 해 초반 30경기엔 출전할 수 없다.

데일리스포츠가 언급한 아시아 기록, 통산 407세이브는 2018년 은퇴한 이와세 히토키의 기록이다. 오승환은 한국에서 9시즌 동안 277세이브, 일본에서 2시즌 동안 80세이브, 미국에서 4시즌 동안 42세이브를 각각 기록했다. 한미일 통산 399세이브다.



올 시즌 세이브 하나를 추가하면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라는 금자탑을 세운다. 여기에 일본에서는 오승환이 이와세의 407세이브 기록을 뛰어넘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